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2030년까지 도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연결	싱가포르
문화·관광	3	유서 깊은 동네 영화관 '라 푸르미' 재개관	리옹
산업·경제	6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 국가와 정보 공유	도쿄
사회·복지	8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 손질해 접근성·효율성 높인다	빅토리아
환경·안전	10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350여 개 공장 이전·폐쇄	상하이
	12	'쓰레기 배출량 반으로 줄이기' 다양한 시책 추진	교토
도시교통	14	무인운전 버스 시범운행 성공	허난
정보·기타	15	'건축공사장 현황·계획 한눈에' 온라인지도 서비스	베를린

2030년까지 도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연결

도시재개발국, 국가 차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싱가포르 / 도시계획·주택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은 2014년 확정된 '싱가포르 기본계획 2014(Master Plan 2014)'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National Cycling Plan)'을 수립

- 계획의 목표
 - 편리하게 연결된 자전거 도로망 건설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장려를 통한 에너지 절감

- 계획의 주요내용
 - 시민들이 녹지공간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건설
 - 자전거 보관소, 노면정비 등 기존시설의 보완
 - 2020년까지 26개의 주택단지를 연결하는 190km의 자전거도로와 360km의 녹지연결도로를 건설
 - 2030년까지 도시 전체가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타운 내 도로(Intra-Town Routes), 타운 간 도로(Inter-Town Routes), 녹지연결도로(Park Connector Networks), 순환도로(Round-Island Routes)를 통합적으로 연결

- 녹지연결도로(PCNs)
 - PCNs는 공원관리청이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주거 지역과 도시 내 공원, 녹지, 강변 등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한 도로망
 - 1992년 처음으로 5km의 칼랑 파크 연결도로(Kallang Park Connector)를 건설한 후 현재까지 8개 루프(Loop), 300km의 연계망 구축
 - 공원관리청은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요 루프의 상세한 안내지도를 온라인상에 게재



PCNs 안내지도

<https://www.ura.gov.sg/uol/master-plan/View-Master-Plan/master-plan-2014/master-plan/Key-focuses/transport/Transport>

<https://www.nparks.gov.sg/gardens-parks-and-nature/park-connector-network>

<http://www.mot.gov.sg/About-MOT/Land-Transport/Cycling/>

문화·관광

유서 깊은 동네 영화관 ‘라 푸르미’ 재개관

프랑스 리옹市 / 문화·관광

- 프랑스 리옹市는 1914년 개관 후 리옹시의 극장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영화관 ‘라 푸르미(La Fourmi, 개미)’의 재개관 사업을 지원

- ‘라 푸르미’의 배경
 - 소유주가 바뀐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예술영화와 실험영화를 상영하다 시설의 노후로 폐업
 - 1974년 새 소유주가 고전영화를 재상영하는 극장으로 재개관한 후 2000년대 초반까지 작품성이 높은 예술영화, 실험영화, 고전영화, 복원된 영화를 상영하다 2012년 영업을 중단

- ‘라 푸르미’의 재개관 및 운영
 - 리옹市, 론알프州, 프랑스 문화부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뤼미에르 영화연구원’은 ‘라 푸르미’를 매입·운영하기로 결정한 후 별도의 영리법인인 ‘시네마 뤼미에르’(CINEMAS LUMIERE)를 설립
 - ‘뤼미에르 영화연구원’은 세계 최초의 영화 제작자인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 유산을 전시하는 ‘뤼미에르 박물관’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임.
 - ‘뤼미에르 영화연구원’은 ‘라 푸르미’를 매입한 후 개보수공사를 거쳐 2015년 9월 ‘라 푸르미’를 재개관
 - 34석·39석·63석 규모의 초소형 영화관으로 재개관한 ‘라 푸르미’는 신규 개봉 영화, 장기상영작, 디지털 필름으로 복원된 고전영화 등을 상영
 - 오전 시간에는 론알프州의 공공문화정책의 하나로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관람으로 활용

- 리옹시의 역할

- 이 사업은 시 당국이 직접 추진하거나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영리법인 ‘시네마 뤼미에르’를 설립해서 인수 작업을 추진
- ‘시네마 뤼미에르’는 리옹의 연극연출가와 독립영화 제작자들이 설립한 ‘민중영화관(Cinéma National Populaire)’ 2개를 인수하여 2016년 재개관할 예정
- 리옹시는 ‘시네마 뤼미에르’가 민중영화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함.



2012년 휴업 중인 '라 푸르미'(위)

2015년 재개관한 '라 푸르미'(아래)

- '라 푸르미' 재개관은 단순히 오래된 극장을 살려낸 사업이 아니라 상업영화에 밀려 곧바로 사라지곤 하는 예술영화, 실험영화, 독립영화 등을 꾸준히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한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의 하나로서 의의를 지님.

- 다양한 유형의 작은 영화 상영공간이 늘어나면서 젊은 영화사들이 파리에서 리옹으로 이전을 기대함.

<http://www.rue89lyon.fr/2014/11/20/institut-lumiere-s-offre-cnp-lyon/>

<http://www.lyon.fr/actualite/culture-loisirs/reouverture-du-cinema-la-fourmi.html>

<http://cinema-la-fourmi.com/2015/09/06/reouverture-du-cinema-la-fourmi-2/>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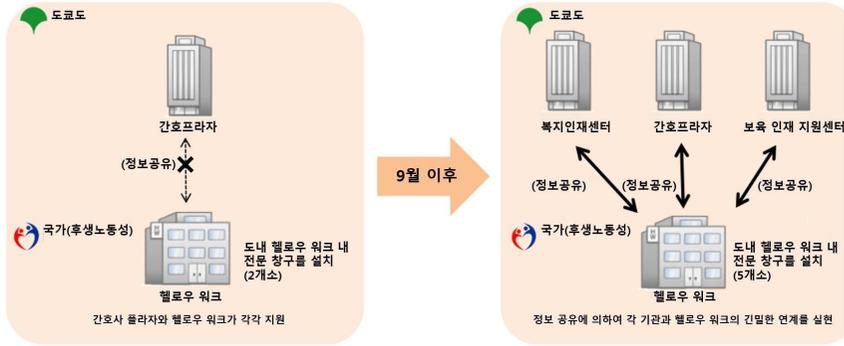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 국가와 정보 공유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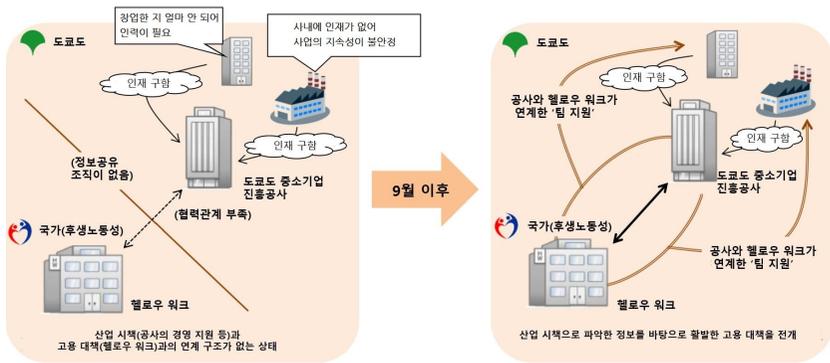
- 일본 도쿄都는 2015년 2월 도쿄도지사와 후생노동장관이 체결한 ‘도쿄도고용대책 협정(東京都雇用対策協定)’에 근거하여 9월부터 후생노동성과 구직에 관한 정보를 공유

- 협력의 배경
 - 중소기업 등에서 필요한 인재 확보
 -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난 해소
 - 사업주와 구직자에게 인력 수급과 취업의 기회 제공

- 협력의 주요내용
 - 인력부족 해소
 - 도쿄도 내 헬로우 워크(ハローワーク)와 간호사플라자, 복지인재지원센터 등은 구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헬로우 워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문 창구를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 헬로우 워크는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의 애칭으로 국민에게 안정된 고용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며 구직자를 위해서는 직업상담, 직업소개,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를 위해서는 고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도쿄도와 헬로우 워크는 간호사, 간병 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등에 대한 취업 지원과 병원, 복지·보육시설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
 -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 도쿄도 중소기업진흥공사가 경영지원 등의 과정에서 파악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동의를 받은 후 헬로우 워크와 정보를 공유
 - 공사가 실시하는 경영지원과 헬로우 워크의 매칭지원을 연계한 ‘팀 지원’ 등을 실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개념도



도내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지원을 위한 개념도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5/09/20p9t200.htm>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5/09/DATA/20p9t201.pdf>

사회·복지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 손질해 접근성·효율성 높인다

호주 빅토리아주 / 사회·복지

- 호주 빅토리아주는 택시산업 정책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Multi Purpose Taxi Program)’의 문제점 보완과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 마련
 -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은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프로그램의 이용자격
 - 이용자격은 이용자의 이동능력과 소득요건에 의해 결정됨.
 - 이동능력에 따라 고욕구(high need) 이용자와 저욕구(low need) 이용자로 구분
 - 고욕구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시각 장애인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정한 혜택을 무제한으로 받음.
 - 저욕구 이용자는 관절염,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이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이들에게는 연간 2,180호주달러(218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짐. 단, 이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할 경우 연 1회 2,820호주달러(282만 원)를 추가 지원
- 프로그램의 요금지원
 - 택시 이용자에게 요금의 50%(최대 60호주달러, 5만 원)를 지원
 - 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택시사업자에게 별도로 16.5호주달러(16,000원)를 지원
- 프로그램의 문제점
 - 장애인 전용 택시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지방의 장애인 택시 이용자들은 택시예약이 힘들고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됨.

- 저소득 이용자에게는 연간 혜택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대중 교통의 할인 혜택은 없음.
 -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복잡해서 이용자들은 자격요건과 혜택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
 - 프로그램의 이용 및 성과 등에 관한 통계자료 구축이 미흡
- 프로그램의 개선안
- 자격요건 개선 :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질병 기준이 아닌 이동성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휠체어 이용 개선 : 택시사업자들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의 구입, 유지·관리 등의 재정지원
 - 프로그램 투명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
 - 프로그램 남용 방지 :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를 하고 타인의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 사진 부착



‘장애인 택시 프로그램’ 카드

<http://www.premier.vic.gov.au/have-your-say-on-a-better-multi-purpose-taxi-program>

http://economicdevelopment.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6/1204764/A-better-Multi-Purpose-Taxi-Program-Discussion-Paper.pdf

환경·안전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350여 개 공장 이전·폐쇄

중국 상하이市 / 환경·안전

- 중국 상하이시경제정보화위원회(上海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는 2015년 9월 환경보호 정책 중 하나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큰 기업 350여 개를 이전 및 폐쇄하겠다고 발표
- 개요
 - 2015년 8월 텐진(天津)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를 계기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폐쇄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발표
 - 폐쇄 대상 주요 업종은 고농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계가공, 금속, 인쇄, 방직, 화학 등임.
- 주요내용
 - 상하이시는 2016년 봄 푸둥(浦东) 지구에 개장 예정인 디즈니랜드가 스모그 등의 대기오염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디즈니랜드 주변 공장 153개를 이전 및 폐쇄 대상으로 선정
 - 이전 및 폐쇄 지역은 디즈니랜드 주변 외에도 황푸강(黄浦江) 상류 수원지 인근 104개, 진산(金山) 지구 대형공원 건설 주변 90개 등 총 5개 권역 350여 개의 기업임.
 - 기업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의 폐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종업원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향후 전망
 - 상하이시는 이들 기업의 이전·폐쇄로 200만 평방미터의 땅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디즈니랜드 주변에는 디즈니랜드의 인프라 시설이나 공공서비스 시설 등을 구축

- 이진·폐쇄 지역에는 토지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이진·폐쇄로 석탄 소비가 연간 4만 톤 감소할 전망

http://www.chinastock.com.cn/yhwz_about.do?methodCall=getDetailInfo&docId=500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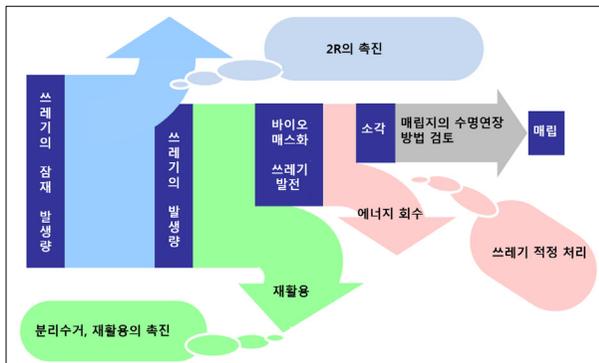
<http://epaper.wzsee.com/article.php?date=2015-09-15&lid=15&id=226598>

<http://www.zhicheng.com/n/20150908/30619.html>

‘쓰레기 배출량 반으로 줄이기’ 다양한 시책 추진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 일본 교토市는 쓰레기발생량 감소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신 교토시 쓰레기반감계획(新京都市ごみ半減プラン)’을 수립
- 계획의 배경
 - 교토시의 쓰레기배출량은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82만 톤으로 절정에 달함.
 - 시가 2010년 ‘쓰레기반감계획’을 수립·운영한 결과 2000년도 대비 쓰레기 배출량은 40% 이상 줄어들었으나 쓰레기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지속됨에 따라 2020년까지 39만 톤의 쓰레기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
- 계획의 목표
 -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2R, REDUCE and REUSE) 추진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촉진
 - 쓰레기의 에너지 자원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쓰레기 최종 처리량의 최소화
 - 환경부하 저감
 -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쓰레기 처리 개념도

- 계획의 주요사항

- 쓰레기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추진
 -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과 사업자에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의무 부여
 - 2000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반감 추진
 - 비닐봉투의 사용 억제
 - 지역 이벤트 등의 에코화 추진

-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촉진
 - 조례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추진
 - 시민들의 자발적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구조 강화
 - 바이오매스의 활용 촉진

- 기타
 - 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강화
 -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조사·연구 등의 기술제휴 추진

<http://kyoto-kogomi.net/about2r/>

<http://kyoto-kogomi.net/wp-content/uploads/2015/04/hangenpuran.pdf>

도시교통

무인운전 버스 시범운행 성공

중국 허난성 / 도시교통

- 중국 허난성에서는 지난 8월 유통(Yutong)社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무인운전 버스를 시범 운행함.
 - 미국의 많은 자동차회사가 무인운전 승용차 개발에 집중한 반면, 중국은 무인운전 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춤.
- 시범운행
 - 8월 말 시범 운행한 무인운전 버스는 정저우市의 혼잡한 도로를 포함하여 32.6km 구간을 최고 68km/h로 운행
 - 무인운전 버스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운전자가 동승하고 있었으나 조만간 운전자는 기능적 로봇으로 대체될 예정
 - 무인운전 버스는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 레이저 레이다, 중앙조절장치 등의 장비를 통해 신호구간과 운행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
 - 시범운행 구간에는 26개의 신호등이 있었으며 혼잡한 구간에서도 무인운전 버스는 차선 변경, 추월, 신호정차 등을 완벽히 수행
- 무인운전 버스의 이점
 - 교통사고의 현격한 감소 가능
 - 버스의 효율적 운전 및 운행 가능
 - 환경오염의 감소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운행의 현실화
- 무인운전 버스는 실제 운행에 앞서 세부적인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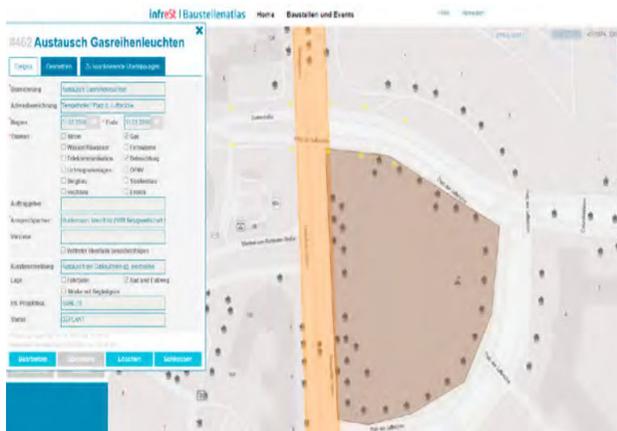
<http://www.citylab.com/tech/2015/10/china-rolls-out-the-worlds-first-driverless-bus/408826/>

정보·기타

‘건축공사장 현황·계획 한눈에’ 온라인지도 서비스

독일 베를린市/ 정보·기타

- 독일 베를린市는 공공공간과 도로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황과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설공사장 온라인지도’ 서비스를 개설
- 배경
 - 베를린시는 ‘건설공사장 온라인지도’ 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해 민관협력으로 인프라스트 인프라스트럭처 e스트리트社(Infrest-Infrastruktur eStrasse GmbH)를 설립
 - 이 회사의 설립에는 베를린 상수도사업부, 베를린 교통본부, 인프라스트사, 가스 공사, 전기열 공급회사(Vattenfall), 가로등 운영회사(Alliander Stadtlicht)가 참여
- 온라인지도의 기능
 - 도로 상에서 공사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의 책임자가 개설된 온라인지도에 공사장의 위치, 공사 상황 등을 직접 기입
 - 공사장 설치지역의 지하매설 배관 정보를 자동 안내
 - 관심지역을 등록한 회원에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규 공사의 계획과 상황을 자동으로 제공





‘건설공사장 온라인지도’의 표시 사항

- 공사의 종류 및 기간, 공사 책임자, 담당자 정보 제공
- 가스, 수도, 전기 배관은 가시성을 위해 다른 색으로 표시
- 같은 지역 내에 중복되는 공사계획은 중요 데이터들과 함께 안내

- 온라인지도의 효과

- 모든 관계기관과 참여자에게 정보와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
- 건설공사장의 설치와 허가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약
- 담당 부서와 공사 책임자 간의 개선된 업무조정
- 굴착·포장공사 등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주민들의 불편 감소, 인근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소음과 먼지공해 경감
- 공사 내용의 구체적 공개로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시위, 축제, 이벤트 등의 계획이 용이
- 프로젝트 파트너십의 구축 가능
- 공사 관련 데이터를 6년간 저장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소재 추적이 가능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509/nachricht5763.html

<http://www.infrest.de/produkte/Seiten/Baustellenatlas.aspx>

http://www.infrest.de/SiteCollectionDocuments/infrest_Broschuere_Baustellenatlas.pdf